

# “남북 관계 긴장 고조돼도...” 통일열차는 달린다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으나, 광주 남구가 시행 중인 통일 교육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지역민들이 DMZ 지역을 방문, 분단의 현실을 실감하고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교육 사업인 '남구 통일효도열차'가 내년에도 운행된다. 통일효도열차는 북한 실향민들의 향수를 달래고 지역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남구가 2022년 10월 첫운행을 시작한 이후 매년 4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총 9명의 열차를 타고 남북 교류와 통일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도라산역, 제3땅굴, 철원평화전망대, 월정리역 등 남북 접경 지역의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해 분단의 현실을 체험한다.

올해도 4월23일 파주행은 시작으로 지난달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평화와 통일 교육이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누

**광주 남구, 내년 본예산 1억여원 편성...올해 대비 소폭 ↑**  
**2022년 평화·통일 함양 위해 추진...현재까지 2천985명 참여**

적 참여 인원은 2천985명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해 남북 연결 통로를 차단하는 등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통일관련 행

사나 프로그램이 축소 또는 전면 중단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구는 통일효도열차 사업을 통해 평화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시민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0

25년 통일효도열차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소폭 증액한 약 1억1천5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예산 심의의결은 오는 12월에 이뤄진다. 올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약 9천470만원이 편성됐다.

또한 남구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남북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남구 통일 걷기(통일 율레)'를 추진, 매일 둘째 주 금요일 3시간가량 걷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올해 예산은 1천800만원이 소요됐

며, 내년에도 이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진 남구 남북교류협력팀장은 "최근 남북 관계가 더욱 경직되면서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희미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남과 북이 한민족으로서 분단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가 무르익도록 '남구형 통일열차'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가로수 낙엽 수거** 절기상 입동(立冬)을 하루 앞둔 6일 오전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관내 운양동 예술의 전당 인근 가로수길에서 떨어진 낙엽이 배수관로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자 전통송풍기를 이용해 수거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 ‘2명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첫 재판 불출석

**범원 “구인영장 발부”...오는 22일 재계**

새벽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하고 달아났던 3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이어 첫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현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모(3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 수감 중인 김씨는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인 이날 오전 돌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김씨의

법률대리인만 재판에 참석했다.

김씨는 지난 9월24일 오전 3시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경찰과 달리 음주 사실을 시인한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 기소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오씨는 다른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광주에서 벗어난 김씨에게 대포폰을 제공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신청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부적절한 인상을 남겨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오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에 대해 범인 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 후속 수사 중이다.

또 사고가 난 마세라티 외에도 특정범죄 10여대의 대포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안재영 기자

## 직장 후배 살해한 상사 ‘정신감정’ 요청

**첫 재판서...피해자 측 “범행과 무관” 엄벌 탄원**

직장 후배가 자신을 공급 횡령범으로 몰았다는 오해에 살인을 저지른 50대 정신질환을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변모(5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변씨는 지난 9월9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직장 후배 A(50대)씨를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변씨는 범행 약 1시간30분 전부터 A씨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변씨가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A씨가 나를 회사에서 매장하기 위해 공급을 횡령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고 오해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날 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변씨 측은 "평소에 정신과 치료를 받진 않았지만, 이 사건 몇 달 전부터 주변에서 권유했었다"면서 "그러나 직장 내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결정적인 필미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A씨 측은 "정신질환으로 의사 결정이 흐려졌다고 한들 그로 인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별건"이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청한 정신감정의 인용 여부에 대해 검토한 뒤 다음 달 6일 재판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우연히 만난 전 직장 동료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도 열었다.

김씨 측은 피해자가 퇴사한 후에도 지속 연락하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보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0일 재개된다. /안재영 기자

## ‘10대 성매매’ 40대 에이즈 확진자 재판대에

40대 에이즈 확진자가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대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개최했다. A씨는 지난 7월 중학생 B

성관계 시 전파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 측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피임 기구를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A씨 측의 답변은 방청객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여죄 수사에 나서고 있어 다음 달 20일 재판을 재개하되,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안재영 기자

## ‘절도 신고 양심’ 흥기 휘두른 50대 구속

과거자신을 절도로 신고한 편의점주를 찾아 흥기를 휘두른 50대 구속됐다.

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하면서 미리 준비한 흥기를 꺼내 B씨를 향해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께 해당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데 양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육근 기자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 USB DVD

##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